



원을 지원해 지역 내 청년들의 자발적인 사회 활동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.

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. ‘청년 창업 특화 거리 조성 사업’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과 임차료의 50%를 지원하며, ‘K-콘텐츠 청년 창업 지원사업’을 통해 사무공간과 공공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창업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.

특히 공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언(컨설팅)과 상담(멘토링)을 병행해 청년 창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구 관계자는 “청년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”라며, “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말했다.